

“투뱅크 체제 유지... 지역자금 유출 절대 없을 것”

광주은행 인수 JB금융지주 김한 회장 인터뷰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은 단연코 없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토탈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60)JB금융지주 회장 겸 전북은행장은 14일 오전 JB금융 본사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통합에 따른 지역민의 박탈감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투뱅크 체제 유지와 지역자본의 증자 참여 등을 통해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통합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민 박탈감 잘 알아... 지역밀착 더 노력 사회공헌비용 순이익 10%대까지 높일 것

-오랫동안 공을 들여 광주은행을 품에 안았다. 김회장은

▲지주사 설립 시기와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이 맞물리며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특히 광주, 전남·북은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서울권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실제 지역 거주민들보다 많다. 장기적으로 광주, 전남·북의 경제문제를 합쳐서 풀면 상상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됐다.

-투뱅크(Two-Bank) 체제를 천명했는데 향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지 않겠는가.

▲지역은행은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40년 넘게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합치면 모일터 있는 고객을 놓치고 선 시너지효과를 논할 수 없다. 단언컨대 투뱅크

체제는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전북은행이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데 500억원이 들었다. 광주은행이 독자적으로 한다면 600~700억원이 들지만 전북은행 시스템이 들어가면 250억~300억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전산 등 일부 겹치는 부분을 효율화 할 필요는 있다.

-지역민의 박탈감이 크다. JB금융이 지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광주·전남 시도민의 박탈감을 이해한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투뱅크 체제를 천명했고 이를 지킬 것이다. 광주은행 고객들은 전혀 변한게 없다. ‘광주은행’ 이름도 그대로 사용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밀착은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광주 전남에서 받은 돈은 광주 전남에 쓰는게 당연하다. 광주전남에서 받은 돈을 전



북에 쓰면 지역민들이 그대로 두겠는가. 역외 유출은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

-평소 서민 중산층을 위한 토탈 금융서비스를 강조해왔다. 수익 차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융사이즈가 커져야 하는데 이번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위주로 한 작지만 강한 금융지주가 되겠다. 또 2015년 국민연금이 전북

에 오면 지역상생펀드(가칭)를 만들어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운영수익을 높은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완토록 하겠다.

-광주은행의 지역사회 공헌은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 JB금융 품으로 가면 이러한 것이 축소되지 않나.

▲전북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용 비중이 13%가 넘는다. 광주은행은 7% 정도인데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 비중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또 지역은행으로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광주은행 인수까지 자금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큰 변화가 없는 한 인수에는 문제가 없다. 광주상이나 광주은행 노조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금산법 분리 기준이 엄격해 그렇게 된 것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대화와 소통으로 이러한 오해를 풀어나가겠다.

지역은행을 경영했기 때문에 지역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참다운 지역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전북 고창출신으로 경이고,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미국 제너럴모터스 본사, 동부그룹 미국 현지법인 이사장, 대신증권 이사,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0년 전북은행장에 취임해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회오리 바람 더 멀리~ 삼성 ‘스마트 에어컨’ 광주産 ‘2014년형 Q9000’ 출시

삼성전자가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더 멀리 보내는 ‘아이스 덩굴’ 기술과 초절전 디지털 인버터를 채용한 프리미엄 에어컨, 2014년형 ‘삼성 스마트 에어컨 Q9000’을 출시한다.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신형 에어컨은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에 골프공의 공기 저항 감소 원리를 응용한 ‘아이스 덩굴’ 기술을 적용해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또 흡입한 공기를 찬 공기로 즉시 바꾸는 하이패스 냉방과 항공기 제트엔진의 기류 제어방식을 적용한 회오리 팬 등 신기술로 무장했다. 특히 초절전 디지털 인버터를 채용해 냉방비 부담도 줄였다.

삼성전자는 17일부터 3월31일까지 16종의 신제품 예약판매를 진행하며 가격은 홈플러스 제품 기준 250만~55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삼성그룹 을 50조원 투자

삼성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50조원가량을 투자할 전망이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그룹 기획총괄 사장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조원 정도 투자하는 나”는 질문에 “그 정도(투자할 것)”라고 답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투자계획을 49조원대로 잡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삼성의 실제 투자가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올해 고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

회가 보기에 경제는 녹록지 않지만, 삼성이 가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계획은 잡았다”고 이 사장은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2만6천여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고용인원은 1000~2000명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도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삼성그룹의 설명이다.

정도현 LG전자 사장은 “투자를 작년보다 조금 더 할 수도 있다”며 “고용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연말 워크아웃 졸업”

한투증권 투자 권장

한국투자증권은 14일 금호타이어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영업상황이 좋아졌는데도 주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1만6000원으로 제시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과 전환사채(CB) 전환으로 금호타이어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2011년 76%에서 올해 288%까지 하락할 전망”이라며 회사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의 을

해 순이익이 작년보다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무난히 워크아웃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장 가동률 상승과 시장 점유율 회복이 타이어 업황 회복과 맞물리며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워크아웃 졸업은 50%가 넘는 채권단 보유 지분 매각을 의미한다”며 지분 매각이 금호타이어 주주에게 손해 볼 일 없는 ‘이벤트’라고 말했다. 소액주주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과 실적 개선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컨셉트카 ‘GT4 스티어’ 북미 국제 오토쇼서 최초 공개

기아자동차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14 북미 국제 오토쇼’(2014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 NAIAS)에서 컨셉트카 ‘GT4 스티어’(GT4 Stinger, 개발명 KCD-10)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GT4 스티어’는 미국 디자인센터에서 개발한 후론 구동 스포츠카로, 기아차의 10번째 컨셉트카다. 2.0터보 GDi 엔진과 6단 수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출력 315마력(hp)의 강력한 동력성을 확보했으며 설계 단계부터 주행 성능에 중점을 둔 차량 무게를 줄인 것이 특징. 또 조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향장치를 장착해 더욱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전면부는 기아차 특유의 호환이코형상의 그릴과 함께 수직으로 배열

된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뤄 단 순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고, 공기역학성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 섬유 재질의 스플리터(splitter)를 앞면과 밑에 적용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컨셉트카 ‘GT4 스티어’는 주행 성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돼 운전자의 즐거움을 극대화한 차량”이라며 “GT4 스티어의 디자인 컨셉트는 기아차의 역동적인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터쇼에서 기아차는 1331㎡ 규모의 부스에 ‘GT4 스티어’를 비롯해 K9, K7(현지명 카덴자), K5(현지명 옵티마), K3(현지명 포르테) 등 양산차 22대 등 총 25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3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14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기아차가 컨셉트카 ‘GT4 스티어’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기아차 제공>

코스피지수 1946.07 (-2.85)	코스닥지수 512.27 (-0.65)	금리 (국고채 3년) 2.90% (+0.01)	원·달러 환율 1059.10원 (+2.40)
--------------------------	-------------------------	------------------------------	-----------------------------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 우리옷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투레유루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프리미엄 빌라의 새로운 기준” 미림빌 선착순 분양중!

즉시입주

- 최고급 도시형 생활주택
- 최고의 전망과 학군
- 엘리베이터 설치
- 친환경 편백나무 시공
- 최고급 인테리어 시공
- 고급 가스오븐렌지·식탁 설치

1층 주차장	4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2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5층 A타입 33평 2세대 B타입 28평 2세대
3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분양문의 011-611-1288 · 062-372-1607 해남 동초등학교 후문 앞(성동리회관 옆)